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창단…문화포교 추진

미래 불자 음악예술인 양성 목표
정필윤 지휘자, 예술감독에 초빙
전문 보컬훈련 등 전폭 지원 예정
12월 29일 선문화회관서 오디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12월 10일 주지 접견실에서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 창단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어린이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어린이 합창단'을 모집하고 새출발을 알렸다.

범어사는 12월 10일 주지 접견실에서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 창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주지 정오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포교 국장 해공 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도명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정필윤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윤재웅 피아니스트, 문유미 범어사 어린이합창단기획실장, 김정리 행정실장, 이소민 보컬트레이너가 동참했다.

간담회는 주지 정오 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포교국장 해공 스님 및 교무국장 석산 스님의 설명 및 브리핑이 이어졌다.

주지 정오 스님은 "찬불가를 통해 아이들이 바른 정서와 맑고 밝은 마음을 키울수 있게 범어사 어린이합창단을 새롭게 창단하게 되었다"며 범어사는 본사로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노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교계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원력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범어사 어린이 합창단은 먼저 미래 성악가 및 예술인을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합창단으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범어사는 정필윤 지휘자를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 정필윤 지휘자는 이탈리아 로마 시립 예술학교 합창지휘과를 졸업한 성악가이며 '라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나비부인' 등 다양한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을 맡은 바 있다. 동의대와 신라대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울산 시립합창단 테너, 김해 시립합창단 수석을 역임했다.

정필윤 지휘자는 특히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의 시초가 되었던 '관음사 단이슬어린이 합창단'을 이끌며 어린이 합창단의 포교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자이다.

정필윤 지휘자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어린이를 위한 무대가 아니다"며 "실력이 없어도 노래하고 음악을 사랑하며 꿈꾸는 어린이를 위한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는 어린이합창단 입단 후 예술중학교에 입학 가능할 정도로 실력을 키워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 보컬 트레이너도 함께 훈련에 동참해 지도한다.

단원 모집 이후 범어사어린이합창단은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를 대표하는 어린이합창단으로 부처님오신날, 팔관회 등 불교 주요 행사의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새출발을 알리는 첫 공연은 2025년 4월 16일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현재 범어사는 어린이 합창단 단원을 모집 중이다. 6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앞서 범어사 어린이합창단 설명회는 12월 14일 오전 범어사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오디션은 12월 29일 오후 2시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진행하며 오디션 당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구글폼 온라인 신청서(https://forms.gle/GEmSpcNNqayxMLYPA)로 제출하면 된다. 051-508-3122

묘엄불교문화상에 주석 스님·불교아카데미 수상

묘엄문화재단, 봉녕사서 시상식
시상식 앞서 13주기 추모다례재
"세주 묘엄스님 사상 선양할 것"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 및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 직후 수상자와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 김동건 묘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비구니 강사이자 율사인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잇는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에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과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가 각각 수상했다.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동건)은 12월 7일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 대적광전에서 '제12회 묘엄불교문화상 시상식 및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 묘엄불교문화상 개인 부문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단체 부문에는 불교아카데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 수상자인 주석 스님은 지난 2019년 사단법인 쿠무다를 설립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인 지원에 앞장섰으며, 비구니스님 교육비 지원과 장학금 후원 등에도 힘써왔다.

주석 스님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한국불교 비구니로써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큰스님께 받은 마지막 유훈이자 가르침"이라며 "묘엄불교재단의 상금 천만원은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정재로 쓰겠다"고 말했다.

단체부문 수상자인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는 지난 2001년 창립돼 남녀가 평등한 교단문화 구축과 대승적 여성불자 양성, 불교 현대화를 위한 경영 교육 등을 펼친 점이 인정받았다.

이어진 세주묘엄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봉녕사 승가대학 덕경 스님 등 학인스님 4명에게 장학금 200만원, 금강율학승가대학원 현담 스님 등 우수 학인 장학생 3명에게 각각 100만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 외부교육기관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각각 3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 앞서 봉녕사는 묘엄스님 원적 13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주지 진상 스님은 "봉녕사를 일군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우리 후학들이 받들어 선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주 묘엄 스님은 1931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1959년 공주 동학사에서 최초의 비구니 강사로 학인들을 가르친 데 이어 1971년 봉녕사에 정착해 봉녕사를 비구니 승가 교육의 요람으로 변모시켰고 1999년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원인 금강율원을 개원해 비구니 율장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신중일 기자

부산 불교계, 김장나눔으로 자비 전하다

범어사, 삼광사 등 주요사찰
김장 김치 자비나눔 잇달아



부산불교계가 김장 김치 자비나눔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범어사가 진행한 자비의 김장나눔행사 모습〈사진 왼쪽〉과 삼광사 김장나눔행사 모습〈사진 오른쪽〉

부산 주요 사찰이 겨울철을 맞아 김장김치를 담고 자비나눔으로 회향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경내 하후원에서 겨울철 김장담기 및 자비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

김장담기 행사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 등 스님들과 관계자 및 봉사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이 담근 김장 김치는 총 5000포기다. 대중의 겨울철 먹거리를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범어와 재단법인 범어청소년동네 산하시설에 1000포기가 전달됐다. 아울러 무료급식을 진행 중인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에도 김장 김치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김장 및 나눔은 겨울철 따뜻한 온정을 전하는 행사로 자리잡은 한국음식문화"라며 "나눔과 화합의 장에 동참해주신 모든 사부대중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도 겨울철 김장나눔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삼광사는 12월 9일 삼광사 대중공양실에서 '제7회 김장나눔 문화제'를 개최했다.

김장나눔 문화제는 한국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화합과 나눔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와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해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등 관계자와 봉사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봉사자와 관계자들은 김장 김치 2000포기를 담궜으며 지역 소외 이웃 1400세대에 전달했다. 김장 김치는 부산진구청에 500박스, 부산 서구청에 100박스, 부산지역다문화센터에 500박스, 저소득가정 400박스로 나눠 지원됐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행사에 앞서 "김장나눔 문화제를 통해 화합을 이끌고 한국전통문화를 널리 계승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원장 정경국원) 부산정사가 연말을 맞아 김장나누기에 동참하고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신뇨엔 부산정사는 11월 28일 부산연제구청에서 진행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에 동참했다. 이날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국원과 부산정사 영준국원이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에 직접 참여해 김장하고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성금 및 김장김치는 연제구 관내 소외 이웃 및 독거 노인 가정을 위해 회향됐으며, 부산 연제구청은 이날 김장김치 3000포기를 담궜으며 관내 280세대에 전달했다. 정경 국원은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해지고 따뜻한 정을 나누며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교상담학술상 여정 스님·허만세 교수

한국불교상담학회 시상식



제4회 불교상담학술상 우수상을 여정 스님〈사진 왼쪽〉과 허만세 교수〈사진 오른쪽〉가 수상했다. 왼쪽부터 여정 스님, 안양규 학회장, 허만세 교수.

제4회 불교상담학술상 우수상을 여정 스님(동국대)과 허만세 교수(계명대)가 수상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학회장 안양규)는 12월 6일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 소리 명상실에서 제4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에는 안양규 학회장, 여정 스님 및 허만세 교수 등 수상자와 김경숙 총무이사와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삼귀의 및 내빈소개, 인사말, 시상식 순으로 이어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여정 스님은 '불성 이론의 치료요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연구했다. 여정 스님은 논문을 통해 '실유불성(悉有佛性)'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개인 본성의 긍정성을 자각하도록 돕는 치유적 효과를 논의했다. 아울러 자신이 번뇌 중생임을 동시에 직시할 때 오히려 건강한 긍정성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주장이다.

여정 스님은 "개인의 본성으로 간주되는 불성에 대한 자각은 자기비난, 자신감 결핍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 자기신뢰와 확신, 희망과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며 "또한 개인이 자신의 현실상을 직시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는 지나친 긍정성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고 스스로를 과대평가 하지 않아 건강한 긍정성 확립에 도움준다"고 강조했다.

우수상을 공동 수상한 허만세 교수는 '불교상담 연구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주제로 연구했다.

허 교수는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 불교 상담 관련 연구의 결과를 보면 양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교 상담의 효과 및 작용 기전에 객관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연구결과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연구는 사전-사후 설계에 의존하고 있고, 대조군을 활용하더라도 무작위 배정이 미흡하여 내적 타당도가 낮은 편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교 상담의 이론적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핵심 개념에 대한 적절한 측정 도구가 부족하여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양규 학회장은 "학술상을 제정한 것은 불교상담학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시작됐다"며 "학술 연구를 통해 좋은 논문이 발표되고 불교상담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오늘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수상자에게도 박수를 보낸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수상자 여정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과 박사이며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상담학과 강사, 한국불교상담학회 교육이사이다. 허만세 교수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이며, 현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금정중, 전국 최초 '녹색학교' 됐다

부산불교환경연대, 협약식 개최



부산 금정중학교(교장 김화선)가 전국 최초 '녹색학교'가 됐다. 앞으로 금정중학교는 지구환경을 위해 녹색환경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와 금정중학교는 12월 5일 교내에서 '녹색학교 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협약식에는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김화선 교장을 비롯해 학생 및 관계자가 동참했으며, 학생 및 교직원은 불교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지구 환경을 위해 나아갈 것을 서원했다. 이번 협약 이 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녹색학교 협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 협약은 해동중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화선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녹색 사찰은 그동안 많았는데 학교가 이렇게 녹색환경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며 "환경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하며 일회용품 줄이기, 비닐 플라스틱 사용 안하기 등을 실천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화두이며 지구촌의 과제이다"며 "금정중학교와 협약식을 하게 되어 감사하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따뜻한 실천으로 지구가 더욱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종 복지재단 "따듯한 겨울 되세요!"

12월 5일 김장나눔 행사



사회복지법인 관음종복지재단(이사장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이 12월 5일 낙산 묘각사에서 '따듯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관음종복지재단은 낙산묘각사 신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절임배추 약 2000kg 가량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만들어진 김장김치들은 따듯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며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다문화가정에 전달됐다.

관음종복지재단 이사장 법명 스님은 "후원자들의 자비와 보시, 김치를 만드는 신도들의 따듯한 마음이 이웃들의 훈훈한 겨울을 위한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경기에 경제적 위기로 내몰리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한 갑진년 동지가 되길 희망한다"고 서원했다.

한편, 관음종복지재단은 매년 12월 첫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는 김장나눔 행사를 15년 간 이어오고 있다.

김가령 기자